

3월, 겨울옷을 채 벗지 못한 이른 봄바람이 매섭다. 나약한 우리네야 진땀 응크리며 추운 기색을 보이지만 산은 떠나지 않은 겨울의 맵쌀 말을 그대로 듣고 서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라고들 한다. 그런데 국토의 70퍼센트 이상이 산이다. 사람 발 닿는 평지 걸을 둘러보면 산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산자락을 따라 세워진 돌 한 조각, 흠어진 흠한 줌도 버릴 게 없다. 수많은 외침을 당해야 했을 고비 고비마다 산은 들레에 석벽을 쌓고 역사의 고통을 감내했다. 능선

# 城郭

고절한 아름다움 뽐내는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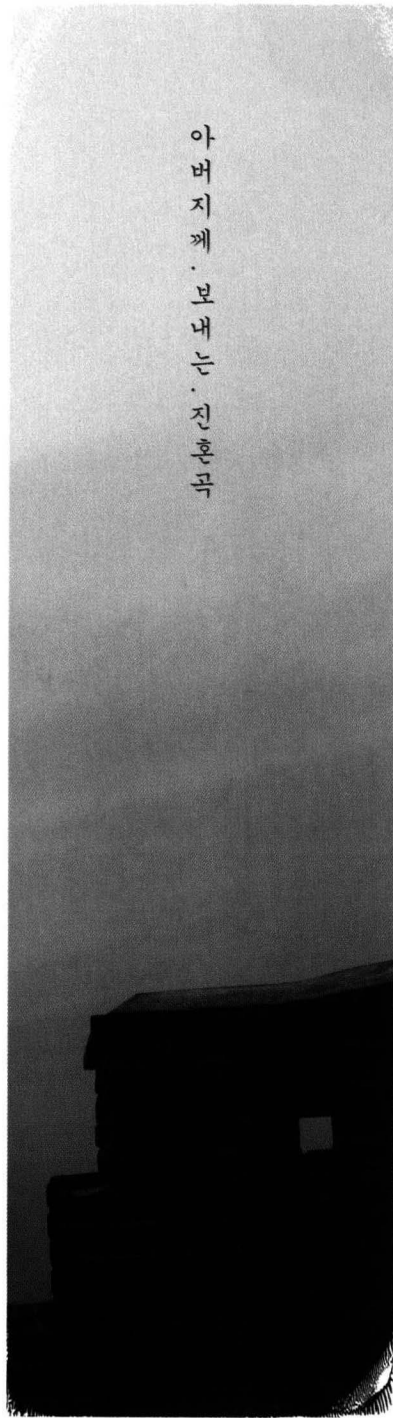
석벽石壁 켜켜이 들려오는 소리



을 따라 걷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단단히 지어진 성곽 곁에 다다랐다. 시선을 높이 쳐든다. 들계단과 석벽, 하늘빛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든 정지의 단청이 고절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눈 머물게 하는 석벽의 문양 하나하나, 순시巡視로서 이 공간의 의미를 알리며 바람에 나부끼는 붉은 깃발, 크기부터 기울기까지 제각각 다르게 만들어놓은 석벽의 구멍들, 눈을 시원하게 할 만큼 푸른빛을 자랑하는 정자의 단청. 비단 혈혼의 역사만 있겠나. 석벽 켜켜이 스민 효심 지극했던 아들의 곡소리, 숲 정령들의 건강한 노랫소리, 석벽 아래 제각기 삶의 이유를 갖고 모여 살던 사람들의 얘기 소리도 들린다.

효심 지극한 아들은 아버지의 고향을 달래기 위해 성을 축조한다.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이라 불리는 수원 화산으로 옮긴다. 그리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로 옮겨 성을 쌓는다.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 그리고 화성에 얽힌 이야기다.

화성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아들의 진혼곡이다. 정치적 이유야 왜 없었겠나마는 이 성곽을 둘러보는 참맛은 뛰니뛰니해도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효성을 읽는 데 있다. 사방으로 뻗은 네 개의 문(창룡문(동), 화서문(서), 팔달문(남), 장안문(북))부터 열어본다. 각기 다른 개성과 사연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2시간이 족히 걸린다. 그렇다고 창룡문 뒤의 동장대에서 확 트인 조망으로 성곽 전체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른 봄 저녁, 인적 드문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귀가 먹먹해짐을 느낀다. 명당이라 불리던 수원 시내는 산 아래 세워진 조립형 장난감처럼 보인다. 성벽의 사각 구멍을 가운데 두고 구멍 안으로 들어간 풍경과 밖으로 나온 성곽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과거와 현재의 낯선 공존을 느끼게끔 유도한다. 화성 축성 당시 농지를 마련해 화성 아래로 이주했던 주민들은 지금 종종걸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도시인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아버지께  
보내는  
진혼곡

성 내부로 들어가 화성행궁을 거닐어본다. 부친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 정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자에 붙은 현판으로 그의 속내를 짐작해 본다. '노래당老來堂', "늙어서 돌아오겠다"는 의미의 집. 세상사 모든 근심 덜고 부친 곁에 편히 눕게 될 날을 미리 그려본 것은 아닌지.

아들은 1794년 정월부터 2년 8개월 만인 1796년 9월까지 화성 축성이라는 거대한 역사 하나를 쓰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성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땅"이란 의미의 화성華城. 그 곁에선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와 아들, 그들이 서로를 위해 불러주는 곡소리 들려온다.



정령의 노래에 홀림을 통과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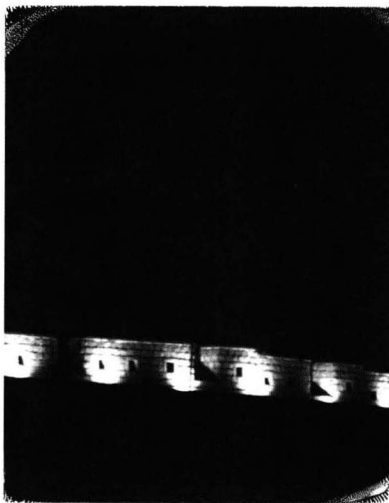
밤마다 왕의 꿈에 노인이 나타났다. 내일은 어느 쪽에 군사를 많이 배치하라, 어느 쪽 성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보수하라는 조언을 들려주곤 홀연히 사라지는 노인. 신기하게도 꿈은 다음날 현실이 된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꾸는 꿈이다. 조선이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청나라 군에 항전했을 때의 어느 날인가는 노인이 나타나 별스런 이야기를 던져놓는다. “성이 너무 커서 혼자 힘으로 지키기 벅차니 신하를 하나 보내 달라”는 것. 이튿날 이서 장군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왕은 깜짝 놀란다. 왕을 모시고 인조와 함께 성을 수비하던 병사 이서 장군이 숨을 거둔다. 꿈에 나타난 노인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이다. 인조는 남한산성 축성을 지휘했던 이서 장군을 온조대왕의 사당 곁에 봉안한다.

경기도 광주의 대부분은 산이다. 평야가 20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퍼센트가 모두 산일 정도다. 남한산성 주변의 산세는 유난히 가파르다. 청량산을 옆구리에 끼고 앉



은 남한산성을 오른다. 뭉가에 홀린 기분이다. 사실 남한산성을 찾는 길은 산이라기보단 하나의 숲이라 보는 게 옳다. 온조대왕과 이서 장군, 인조 그리고 수많은 충군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먼저 숲의 정령들에게 허락을 받는 게 통과의례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군사를 독려했다는 수어장대에 이른다. 제법 굵은 힘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이 등장한다. 평균 100년생 정도로 추정되는 남한산성의 소나무들은 산성을 찾는 이의 발을 멈추게 한다. 솔바람에



취해 잠시 발길을 멈춘다. 맑은 날 시야가 확 트이는 게 더없이 청량하다.

남한산성은 두려움이 없다. 슬픔도 없다. 온조대왕과 같은 현몽의 주인공이 제 뼈를 묻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해 주었기 때문만은 아닐 테다. 백제 이후 외세와 항전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곳. 수령樹齡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 20만 평을 앞에 두면 “불패의 신화, 남한산성에 잘 오셨습니다”란 소리부터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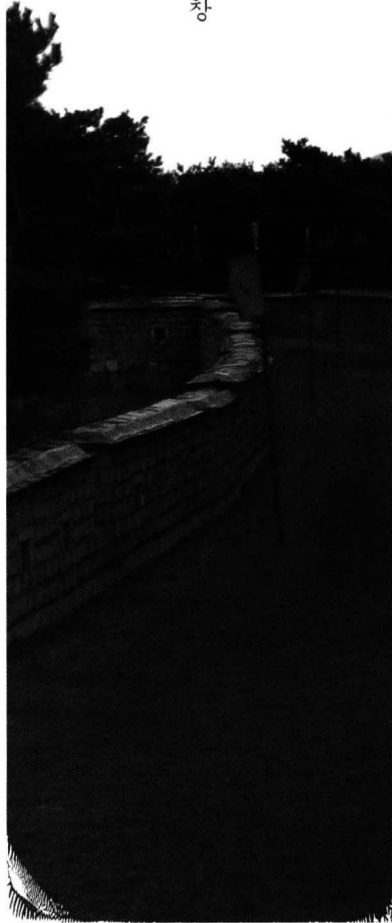
마땅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던 시인을 위해 지인들이 집을 마련해 줬다. 성북동 서울 성곽이 놓인 능선 아래 지어진 집. 만해 한용운은 1933년부터 생을 마감한 1944년까지 심우장이란 이 공간에 머물며 시를 적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이다. 이유는 조선총독부를 등지고 앉고 싶다는 주인의 고집 때문이었다.

이웃인 양 맞은편엔 일제시대, 단편소설가로 활동했던 이태준의 한옥이 있다. 땃돌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올라서면 거실로 바로 이어지는 집구조다. 빼적거리는 나무 마루에 앉아 마당 그리고 높이 보이는 성곽의 석벽들 물결치는 모습을 바라보면 시골 외가를 찾은 손자의 마음이 된다.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은 객촉에게도 정을 준다. 서까래가 훤히 드러난 지붕, 한지를 발라 마무리한 낡은 벽이 남다른 운치를 드러낸다. 한쪽엔 작가가 정리한 옛 작품들이 놓여 있다.

알 만한 이들은 “강남보다 부자들이 많은 곳”이라고들 소개한다. 디르자 형 한옥 하숙집, 우물이 있는 마당, 능선과 성곽 석벽의 실루엣을 편히 누워 감상하게 만든 마룻바다 등 어디서 만나기 힘든 풍경들이 동네의 알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서울 성곽 북쪽에 있는 성북동은 소란스러운 서울 중심가가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데도 유난히 고요하다.

삼인삼색을 고루 갖췄다. 서울 성곽은 각기 다른 세 왕의 색깔로 만들어졌다. 태조

가  
난  
한  
이  
들  
의  
소  
박  
한  
독  
창



가 처음 축조했고, 세종이 개축했고, 숙종 때 수축했다. 그들이 성곽 축조에 개입할 때마다 돌 모양, 축조방법이 각기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흔히 들려온다. 1396년 조선 태조가 세운 약 18킬로미터의 길이를 자랑하는 성곽. 다른 성곽들이 식민지 시대 상당부분 헐렸지만 성북동 성곽은 인왕산, 낙산 등을 비롯해 일부 남아 있는 중심가의 터다.

굳이 과거를 떠올리지 말라. 능선을 따라 쌓은 성곽 옆으로 난 산책로를 거닐어 보면 나도 모르게 도읍지 주변에 거주했던 소시민이 돼버리니. 동네를 비집고 들어선 저택들 곁에 고만고만한 낮은 한옥들을 눈여겨보라. 구멍 송송 뚫린 성곽 따라 난 산길 바라보며 시 한 편 읊었던 옛 문인들의 소리 들린다. **\*\*\***

글 | 김청연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